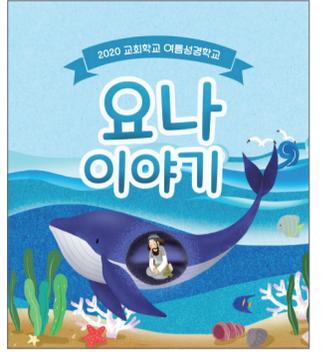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 “바로 저예요”

<2020 광림교회 교회학교 여름특별프로그램> 7월 12부터 한달 간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다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지난 8월 2일(주일) <제1회 광림 어와나 그랑프리>가 사회봉사관에서 열렸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개성만점의 자동차를 손에 쥔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지난 한달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색칠해 자동차를 완성한 친구들은 온 가족의 응원 속에 경주대회에 출전했다.

7월 12일(주일) 시작된 ‘2020 교회학교 여름특별프로그램’이 고등부만을 남겨둔 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예년처럼 비전랜드의 넓은 자연에서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교사들은 지난 몇 달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콘텐츠를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했다. 코로나19로 교회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여름수련회가 정규 예배 안의 교육 일정으로 축소되었지만 각 부서는 연령별 특성에 맞게 ‘중등부의 요나두? 아나두!’, ‘초등부의 말씀코스 프로그램과 모래액자 만들기’, ‘어와나의 그랑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변화의 주인공’(요나 1:17~2:1)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또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풀어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유하은 학생(중등부)은 “시험 기간 중에 여름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학교공부처럼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을 읽고 부모님과 함께 문답풀이를 하며 골든벨에 참여했고 이번 주일에는 여러 게임을 하며 선물도 받았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 예전처럼 비전랜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도 하고 함께 자고 싶어요”라고 했다.



믿음의 다음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할 때다.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중에선 교회학교가 아예 문을 닫거나, 성전예배로 전환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0~50%이상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믿는 부모들조차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는 보내면서도 교회학교

예배에는 소극적이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텅 빈 교회학교를 볼 때 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느 교사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렸고, 금번 수련회 기간 성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마스크 너머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 뭉클을 고백하기도 했다.

김정훈 집사(중등2부 부장)는 “코로나19로 많은 친구들이 성전에서 주일성수가 어렵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나오는 것이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모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심방하여 많은 친구들이 다시 예배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통과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2 광림의 강단
은혜를 누리실 삶

3 광림 스토리
기쁨의 찬양5집 발간

4 하나님을 만나다
생생속회(26교구)

5 다음세대
청년부 교육선교 증보기도회

6 특집
광림수도원을 가다2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은혜를 누리는 삶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이자 개미 전문가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은 자신의 개미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미집 안에 개미가 죽어 있어도, 다른 개미들이 이 사실을 아는데 며칠씩 걸린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후각을 통해 죽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죽어 부패하게 되면 '올레산'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냄새를 맡고 나서야 개미들은 동료 개미의 죽음을 알고, 개미를 무덤으로 끌어냅니다. 개미들은 다른 냄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지만, 올레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죽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개미에 올레산을 묻혀봤더니, 다른 개미들이 죽었다고 인식하고 개미 무덤으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개미들은 자기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롬 6:11-12)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썩게 될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체를 처리하는 개미들 처럼, 은혜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의 요소는 단호하게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2절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불리는 토레이(R. A. Torrey)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을 따라 기도했을 때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인은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따라 기도하자 여인은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서 십자가를 바



고린도후서 6장 1~10절

1.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매 맞음과 감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6.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

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보게 되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고백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며,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경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9~10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부족해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외형과 내형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해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그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변화시

키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비워내어 새로움을 더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Simone Weil)는 이 우주에는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중력은 그 자체로 점점 몸집을 불리기 위해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인간에게도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외형적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 곧 다 자기의 것으로 끌어들이려는 '이기심'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와 다릅니다. 은혜는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포용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게 합니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계속 증폭되어 나를 회복케 하고, 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됨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2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통한 변화와 회복,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이를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와 나눔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삶,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 나눔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4

웨슬리 채플의 장식(비둘기와 뱀)



▲ 웨슬리 채플의 발코니에 있는 장식.

존 웨슬리는 런던에서 공장을 빌려 파운드리 채플을 세우고 폭발적인 감리교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곳은 브리스톨의 뉴롭과 더불어 감리교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에게는 더 넓고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채플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곳에 새 채플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곳은 지금까지 감리교회의 상징이자 전 세계 감리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새로운 채플을 세우며 뉴 채플(New Chapel)이라 이름 짓고 직접 설계에 참여하며 건물에 감리교 운동의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 당시 런던에서 기둥 없는 가장 큰 홀이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18세기 건물 중



▲ 웨슬리 채플의 장식(비둘기와 뱀): 웨슬리 채플 리모델링 전 예배당의 발코니에 있던 장식이다.

에도 건축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와 친교의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도로의 마차 소음을 피해 도로에서 깊숙히 들어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건물이 매우 심플하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부담 없는 건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존 교회 건물과는 다른 형태로 지어졌으며 높은 종탑이나 화려한 장식이 없습니다.

다만 존 웨슬리는 예배실 발코니를 둘러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문장을 새겨 넣었는데, 그것이 오늘 소개할 뱀과 비둘기 문장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문장을 통해 새로운 채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뱀은 구원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 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치유를 통해 참된 평화를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장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분별력 있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구속과 치유를 경험하며 지혜와 순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리교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림사회봉사관을 건축할 당시 웨슬리 채플의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건축현장을 둘러본 후 이 건물이야말로 존 웨슬리의 사회성화 정신이 가장 잘 깃들여 있는 건물이라며 2013년 광림 헤리티지 & 비전을 봉헌할 때, 웨슬리 채플 예배실에 붙여 있던 뱀과 비둘기 문장을 떼어 우리교회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장식품은 존 웨슬리가 채플을 봉헌한 1778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여선교회총연합회 8월 월례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사랑의 쌀 전달식
남선교회총연합회는 8월 2일
사랑의 쌀 전달식을가졌다.



사랑부 여성성경학교
사랑부 여성성경학교가 8월 2일~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각 부서 정규예배
가운데 말씀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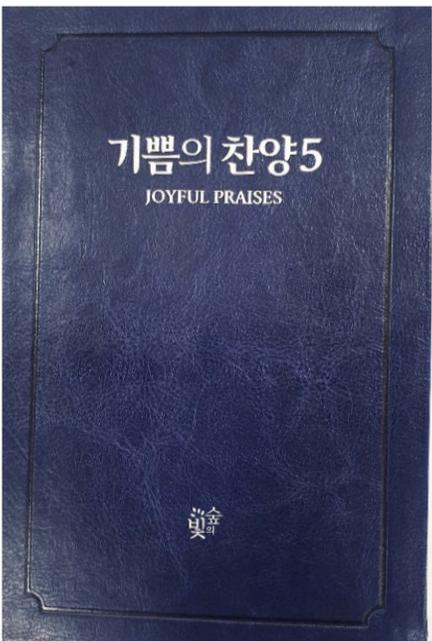
- 8/2 주일예배
- 8/2 여선교회 월례회
- 8/9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기쁨의 찬양 5집> 발간

예배와 속회, 선교회에서 찬양할 400곡 수록



광림교회는 주일 4, 5부 예배를 비롯한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치유의 신학, 금요은혜의 밤 등의 예배에서 사용될 '기쁨의 찬양 5'를 만들었다.

이번에 출간된 기쁨의 찬양5집은 한국교회에 친숙하게 불러온 복음성가곡은 물론 최신 곡을 포함하여,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400곡을 선곡하여 모두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제작되었다.

최근 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격조 있게 드러지는 주일 오전예배에는 찬송가에 실린 곡을 주로 찬양하지만 그밖의 예배에서는 복음성가곡이 자주 불러진다. 복음성가는 원래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세기 후반 대중 전도집회(대표적으로 무디의 전도집회)를 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면서 회중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또 쉽게 배워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작곡한 대중적인 성격의 찬양곡을 가리킨다. 이것이 20세기에 들어 교회 음악의 여러 장르 및 대중음악의 흐름과 손을 잡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발간사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가 있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송의 삶이며, 우리는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여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놀라게 사용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막힌 것

이 풀어지며,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번에 발간된 기쁨의 찬양5집을 통해 예배와 속회, 선교회로 모임 때 마다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바란다"고 했다.



기쁨의 찬양5집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빛의 숲 서점(02.2056.5771)에서 구입 할 수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도 할렐루야"(시편 150:6)

이득섭 기자 7subee@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린도전서13: 4~7)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소천 하셨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으나 청년부 때 신앙적으로 회의가 들었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 후 회계법인에 입사하면서 바쁜 업무를 핑계로 주일예배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셨는지 간소리(?)도 하시고 믿음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셨으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는 자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으나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 돌잔치에 갔을 때 형수님 소개로 아내 홍 집사를 만났습니다. 프로 포즈를 했는데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키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홍 집사를 못 만났으면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믿음을 성장하게 도와준 아내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게 하심을 다스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제게 남선교회 회계 직분을 맡겨 주셨을 때 처음에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였지만 주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한 구절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기도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33)



이종우 집사(남선교회총연합회 회계)

生生
생생 속회 (50회)

<26교구 스테반선교회>



올해 첫 집사 직분을 받은 제가 26교구 스테반 선교회 회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혜와 돕는 손길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6교구 마리아 선교회의 기도와 헌신

26교구에서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 선교회의 주선으로 작년 11월 스테반 회원들의 첫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임 후에 남선교회의 사

명과 선교회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1월 선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10명의 선교회금납부 회원들로 2020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부인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교회의 효율적 적용

코로나사태가 극심했던 2월과 3월은 선교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결단하고 나온 선교회원들의 마음을 놓칠새라 4월과 5월에는 온라인 선교회를 도입했습니다. 40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치된 순종과 기도로
내딛는 선교의 한걸음

마음을 움직이셨고 서로의 처지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지된 선교회는 선교회원들의 기도로 6월과 7월에는 다시 오프라인 선교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봉사관 2개의 예배실을 빌려 한 방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리아 선교회가 다른 한 방에서는 스테반 선교회가 드러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선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교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회의 생명은 전 선교회원의 일치된 순종

선교회의 부흥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선교회 일을 내 일같이 담당하시는 회원님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선교회비계좌 업무를 감당하시는 문민선 회계님, 스테반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시는 난세은 서기님, 오프라인 예배를 후원해주신 공진한 성도님과 이강현 성도님, 열심히 섬겨주시는 권상훈, 김한비 성도님과 고요한 집사님, 고문역할을 해주신 김종엽, 김성욱 집사님. 저에게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배같은 돕는 손길입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길로 저희 스테반선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대해봅니다.

이현업 집사(26교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광림남교회



광림남교회 유아부와 유치부는 매년 여름이면 교회 앞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센터활동을 기획하여 이틀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7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시간을 활용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름성경학교가 단시간 집중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다면,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주제를 깊이 있게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시간이었습니다.

2020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각각의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주일 예배시간에 말씀을 배운 후에는 공과 시간을 활용하여 2부 활동을 진행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교회학교 텃밭 활동을 하면서 대파와 깻잎을 심고 이름표와 풋말을 달아 주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유아부는 점토 십자가 만들기, 유치부는 “특별한 나를 꾸며요”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 배우며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셋째 주 유아부는 공과 활동, 유치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 꾸미기 활동으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주에는 유아부는 도시락 만들기로 유치부는 인형 만들기



활동으로 한 달 동안의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에도 모든 교사가 각자 맡은바 성직껏 준비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덕분에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각자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홍정원 집사(광림남교회 유아부 부장)

“주일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LFC 광림 청년부 예배 캠페인>



광림교회 청년부는 7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 3가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했던 주일예배를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이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이다.

2020년 하반기까지 주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킬 때,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성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

두 번째는 '1620'이다.

청년부가 참여하는 주일 5부 예배는 오후 4

시 30분에 시작되므로 예배 10분 전, 16시 20분에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먼저 기도로 마음의 발을 옥도가 되도록 기정하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 하나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 임재의 기도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정보경 청년 5교구장은 말했으며, 정우석 청년 6교구장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복잡한

마음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통일되었다!”라고 했다.

세 번째는 '예배 앞자리 앉기'이다.

청년부는 7월 1주차부터 예배 앞자리 앉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년들이 예배를 보는 데는 뒷자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기에는 앞자리가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자 했다. 1주차에는 청년부 교구장들이 먼저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앞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은혜를 체험했다. 전술원 청년 1교구장은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집중 최고!”라고 했고, 박현서 청년 2교구장은 “홀려들어오는 예배의 에너지가 다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고백했으며, 조리지 청년 3교구장은 “목사님과의 아이컨택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이 절로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은혜 가득한 자리!”라고 했다.

앞으로도 청년부에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지속적으로 도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 '주일예배를 지킬 때, 주일예배가 청년들의 삶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간증들이 흘러넘치기를 기대한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선한 일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대로 해도 가끔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 멈추면 안돼요” ‘the hate you give, 당신이 남긴 증오’ 라는 책에 담겨있던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제대로 하고 있던 선한 일, 선교와 그것을 향한 마음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가진 못하지만 '기도'라는 위대한 행위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교육선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달려오다 개인적인 상황과 맞물려 번아웃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2년 동안 광림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선 예배가 회복되어야 했고, 온전한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광림에서의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예배, 치열했던 교육선교의 기억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과 울동을 배우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은 청년부라는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교육선교에 대해 애뒀었던 이유는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들,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간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아이들을 붙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귀하게 여겨졌고, 그 은혜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공동체 회복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육선교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교육선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며,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지역과 아이들과 가정,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민다정 속장(청년부)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지역 교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LFC 광림 청년부 국내교육선교 중보기도회>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주간 목요일마다 목요일 새벽 7시에서 <2020년 교육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회>로 모였다.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이어오던 국내 교육선교를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 국내 총 10개 지역의 교회들을 돕기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6일 1차 기도회는 남양주지역 제자교회, 단양지역 가산교회, 천안지역 새생명교회를 위해, 23일 2차 기도회는 전주지역 순창 벨엘교회, 광주하남지역 예수공동체교회, 대전 서북지역 주를향한교회를 위해, 마지막 30일 3차 기도회 시간에는 대구지역 드림교회, 세종지역 세종제자교회, 공주시지역 열린문교회, 이천지역 가좌교회를 품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중보기도회는 지난 교육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시간과 10개 지역 교회를 소개하

는 시간, 그리고 지역 교회의 기도제목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기도회 가운데 청년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였고, 남선교회의 교육선교 후원금과 합하여 각 교회마다 50만원 상당의 전도용품과 여름 성경학교 지원물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역교회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올 여름 교육선교는 제 삶과 제 문제에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던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축복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멀리 계시지만 지역 교회 분들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며 주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강영서 팀장은 말했다. 유현수 팀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 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



다. 교육선교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고 내년의 교육선교를 기대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왕범식 팀장은 “처음 후방선교를 제안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직접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청년부가 이번 여름에는 직접 교육선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후방에서 중보기도와 마음을 담은 후원을 통해 지역 교회 아이들과 목사님, 그리고 교사들을 섬기는데 쓰임 받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청년부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기대에 부응하는 삶

- 목회현장 -



최세희 목사 (2선교구)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저의 모교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이 학교의 대표적인 전통은 1956년부터 이어져온 무감독 고사입니다. 학교 성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고등학생들에게 감독관 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고, 각자의 양심에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밀어붙였던 것은, 우리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지킬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4교구에 모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중식당에 심방 차 방문하였습니다. 분주한 점심시간이 되자, 10명 남짓의 가게는 이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감사할 사항이건만, 현실을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도님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다니, 홀서빙은 물론, 카운터 조차 바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주문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실까? 혹여나 우리 성도님 컴플레인을 들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이러다 급하면 전도사님이 서빙하고, 내가 카운터를 봐야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던 차나, 한 손님이 잘 먹었다며, 선반에 놓인 금고 바구니에 돈을 넣고, 그 안에서 거스름돈을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손님도 알아서 돈을 넣고, 알아서 잔액을 챙겨갔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손님들이 행주를 가져다가 본인이 식사했던 자리를 깨끗이 닦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손님에게 양심을 기대하고, 손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 풍경이 가게 곳곳에 진열된 우리교회 역대 심방 선물들과 한데 어우러지니 마치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사5:7),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닌,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녀로 만드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이 있으신 까닭이 아닐런지요. 우리의 양심을 발휘하고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멋진 전통이 되며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26:2)



광림수도원을 가다 - 2

살롬하우스

한국교회 영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처 광림수도원의 숙소인 살롬하우스는 2019년 3월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봉헌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 살롬하우스는 2인실, 4인실, 12~30인실 등 총 410명이 동시에 숙박이 가능하며 식당, 광림헤리티지&비전홀(광림역사관) 등이 있다. 5층 옥탑방은 소모임과 숙박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꾸며졌고, 헤리티지&비전홀은 관람이 편리하도록 1층 로비에 내부 출입문을 만들었다.

루체 포레 휴게실, 회의실과 수도원 외부 전망을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함을 더했다. 지하 1층은 대용량의 전기실, 기계실과 대형 세탁실은 자동 설비로 침구류 등의 위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 대성전으로 연결되는 비아 돌로로사(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

국내외 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신학대학교 및 평신도들 모임 등 연 평균 540여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10만 여명 성도들이 광림수도원을 찾고 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 아담 해밀턴 목사, 애즈베리신학교 티모시 테넌트 총장, WME 에디 콕스 박사, 영국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 외에도 매년 미국 애즈베리 신학교, 세인트폴, 웨슬리신학교, 일본 요도바시교회 등 해외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방문하고 있다. 광림수도원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영적 공간으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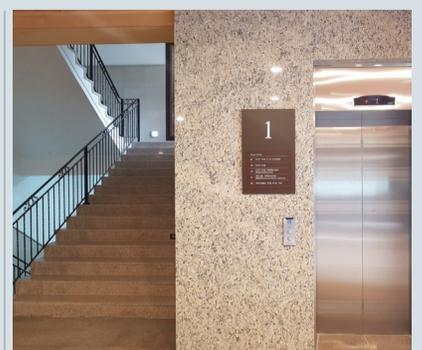


▲ 2인실 20개, 4인실- 4개, 단체실 12/ 20/ 25/ 30인실 21개 총 45개의 숙박 시설로 각 방에는 화장실, 샤워실이 있고, 공동 샤워실은 칸막이로 개인부스를 설치했다.

▼ 500여명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살롬하우스 식당은 여선교회에서 새롭게 주방시설 등을 봉헌함으로 더욱 깨끗하고 편리해졌다.

옥탑방 외부에서 바라본 대성전 모습. ▼

외부 전망을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새롭게 설치되어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더 했다. ▼





◀ 2층 회의실은 20여명이 모일 수 있으며 프로젝션 장비 등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휴게실 루체 포레는 2층 숙소 중앙에 있으며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고 바깥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한 다용도 휴게 시설이다. ▶

▼ 지하 1층에는 최신 대용량의 전기 시설 및 개별난방이 가능한 기계실, 세탁실 등이 있다.
세탁실은 숙소의 모든 침구류의 자동세탁과 건조시설을 완비해 청결함을 더하고 있다. ▶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

다락방 채플



광림수도원의 다락방 채플은 2009년 10월6일에 봉헌되었으며, 본관 예배실과 부속건물인 세미나실로 이루어져 있다. 예배실은 일본 나가노 고마가네 국제광림미션센터의 형제 건물로 동일한 양식과 재료로 건축되었다.

한국(광림교회)과 일본(요도바시교회)의 선교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양국에 같은 건물을 지었다. 다락방 채플은 12제자를 의미하는 12각지붕과 12기둥으로 설계하였고, 강단에는 최후의 만찬 부조작품이 설치되었으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를 의미하는 120석의 좌석을 갖추었다. 내부와 외부는 모두 복미산 침엽수로 꾸며졌으며, 특유의 나무향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예배실은 출입구와 강단을 제외한 10면에 모두 대형 창문이 있어 주변의 자연환경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락방 채플은 광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교회 창립 45주년과 장천 성역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광림헤리티지 & 비전홀은 1998년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봉헌했다. 지난 2019년 살롬하우스 리모델링 때 기존장소에 새롭게 단장했다. 광림교회 역사를 소개하는 히스토리 월, 감리교회 역사, 광림교회 목회철학, 글로벌 광림교회와 선교현황이 전시되어 있다. 광림교회 역대 심방선물과 기념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5 나사렛 석비(Nazareth Inscription)



Nazareth Inscription ▲

1. ΔΙΑΤΑΓΜΑ ΚΑΙΣΑΡΟΣ
2. ΑΡΕΣΚΕΙ ΜΟΙ ΤΑΦΟΥΣ ΤΥΝΒΟΥΣ
3. ΤΕ ΟΥΤΙΝΕΣ ΕΙΣ ΘΡΗΣΚΕΙΑΝ ΠΡΟΓΟΝΩΝ
4. ΕΠΟΙΗΣΑΝ Η ΤΕΚΝΩΝ Η ΟΙΚΕΙΩΝ
5. ΤΟΥΤΟΥΣ ΜΕΝΕΙΝ ΑΜΕΤΑΚΕΙΝΗΤΟΥΣ
6. ΤΟΝ ΑΙΩΝΑ ΕΑΝ ΔΕ ΤΙΣ ΕΠΙΔΙΞΗ ΤΙ
7. ΝΑ Η ΚΑΤΑΛΕΛΥΚΟΤΑ Η ΑΛΛΩΤΙΝΙ
8. ΤΡΟΠΩ ΤΟΥΣ ΚΕΚΗΔΕΥΜΕΝΟΥΣ
9. ΕΞΕΡΡΙΦΟΤΑ Η ΕΙΣ ΕΤΕΡΟΥΣ
10. ΤΟΠΟΥΣ ΔΟΛΩ ΠΟΝΗΡΩ ΜΕ
11. ΤΑΤΕΘΕΙΚΟΤΑ ΕΠΙ ΑΔΙΚΙΑ ΤΗ ΤΩΝ
12. ΚΕΚΗΔΕΥΜΕΝΩΝ Η ΚΑΤΟΧΟΥΣ Η ΑΙ
13. ΘΟΥΣ ΜΕΤΑΤΕΘΕΙΚΟΤΑ ΚΑΤΑ ΤΟΥ
14. ΤΟΙΟΥΤΟΥ ΚΡΙΤΗΡΙΟΝ ΕΓΩ ΚΕΛΕΥΩ
15. ΓΕΝΕΘΑΙ ΚΑΘΑΠΕΡ ΠΕΡΙ ΘΕΩΝ
16. ΕΙΣ ΤΑΣ ΤΩΝ ΑΝΘΡΩΠΩΝ ΘΡΗΣ
17. ΚΕΙΑΣ ΠΟΚΥ ΓΑΡ ΜΑΛΛΟΝ ΔΕΗΣΕΙ
18. ΤΟΥΣ ΚΕΚΗΔΕΥΜΕΝΟΥΣ ΤΕΙΜΑΝ
19. ΚΑΘΟΛΟΥ ΜΗΔΑΝΙ ΕΞΕΣΤΩ ΜΕΤΑ
20. ΚΕΙΝΗΣΑΙ ΕΙ ΔΕ ΜΗ ΤΟΥΤΟΝ ΕΓΩ ΚΕ
21. ΦΑΛΗΣ ΚΑΤΑΚΡΙΤΟΝ ΟΝΟΜΑΤΙ
22. ΤΥΜΒΩΡΥΧΙΑΣ ΘΕΛΩ ΓΕΝΕΣΘΑΙ

1. 황제의 칙령
2. 이것은 [1] 무덤과 묘실에 대한 나의 결정이다.
3. [1 누구든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
4. 또는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만든]
5. (이 무덤과 묘실은) [2]영원히 평온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6. [2 무덤이 있는 동안] 만약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한다면,
7. 그것(무덤과 묘실)을 파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8. 무덤에 장사된 이를 끄집어 내거나, (시신을) 다른
9. 곳으로 [3]악의를 가지고
10. [4] 옮기거나, [3 모욕을 줄 목적으로]
11. [4 시신을], 또는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을 옮기거나
12. 다른 돌들을 뒤바꿔 놓으면,
13. (고발된) 그 사람은 [5]
14. [6] 재판에 넘겨진다. [5 신들의 관습을 어긴 사람들이 받는 재판과 같은]
15. [6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어겼으므로]
16. 왜냐하면, [7]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17. [7 매장된 이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18. 그러므로, 누구도 (무덤과 묘실)그런 것들중
19. 어떤 것도 옮기지 못한다.
20. 달리 말하자면, [8] 그 사람은
21. 사형에 처한다
22. [9 무덤과 묘실을 훼손한]

프랑스 루브르 (Louvre)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던 프리너 (Wilhelm Froehner)가 자기 개인 소장고에 보관하던 오래된 대리석 돌판 하나가 그의 사후(死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대리석 석판에는 “1878년에 나사렛에서 온”이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그 이후로 ‘나사렛 비문’ (Nazareth Inscription) 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리석 돌판에는 22줄에 걸쳐 그리스어로 쓰여진 로마 황제의 칙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칙령은 무덤과 묘실에 대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필체를 보아서 대략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1878년에 나사렛에서 온”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기는 하였지만,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 석판의 존재에 대해서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이 대리석 석판에 프리너가 “나사렛에서 온”이라고 적어놓기는 하였지만, 정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사렛에서 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리석 석판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는데, 나사렛과는 너무나 떨어진 터키 지역의 코스 (Kos) 섬에서 뜬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 부류의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이 칙령이 로마 배경에서 로마 제국의 터키 지역에서 발효되었던 칙령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원전 30년대에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의 권력을 뒷받침하며 코스 섬을 다스리던 통치자 니키아스(Nikia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가 가혹하여 그의 학정에 치를 떨던 섬의 주민들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

고 사망한 후 (31BCE), 더 이상 정치적으로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니키아스가 죽자 (20BCE), 그의 무덤과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그 방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대의 로마 시인들이 이 사건을 노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신약 성경의 아우구스도 황제)는 이런 야만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칙령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설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매장 방식이 주로 화장이었고, 가족 묘의 형태는 로마의 무덤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칙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족묘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나 소아시아의 매장 풍습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들을 두는 매장 방법은 전형적인 유대아 (Judaea)식의 매장 방법이거든요. 둘째로는 로마에서는 극 소수의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이 호화로운 개인 무덤 건축물(Mausoleum style tomb)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건축물에 침입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치스러운 부장품을 약탈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칙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호화로운 무덤 건축물 역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무덤이었으므로 이 칙령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칙령의 시작은 로마의 역사적인 정황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로마의 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칙령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전 영토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칙령이 내려졌으며, 유대아 역시 이 칙령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아 지역에는 특별히 가족묘 형식의 동굴 매장 형태가 반영된 칙령이 대리석판에 기록되어 로마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칙령은 예수님 시대는 물론, 그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사회에서 유효한 법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칙령을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28장의 한바탕 소동을 한 걸음더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뒤늦게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된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요. 이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노라고 거짓말할 것을 종용합니다 (마 28:11-15). 그런데, 이 거짓말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지 모른

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모릅니다. 두번째로는 자신들에게 날아올 비난의 화살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의 부활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알려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우쭐대던 장로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 유대아의 사람들도 가만 있을리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비문의 칙령은 아우구스도 황제(아우구스투스 Augustus 황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르면, 무덤이나 묘실을 훼손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덤의 돌을 옮기고 시신을 옮긴 사람들이라고 고발한다면, 황제의 칙령을 어긴 셈이 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아에서 없앨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말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꽤나 어려웠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설명

- 1 나사렛 석비
- 2 나사렛빌리지에 재현된 예수님 시대 무덤 입구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